
한국융합인문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 ▶ 일시 : 2018년 10월 27일 (토), 14:00~18:00
- ▶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문과대학 224A호
-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세부일정]

- ▶ 일시 : 2018년 10월 27일 (토), 14:00~18:00
-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암캠퍼스 문과대학 224A호
-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 제1부 학술대회 (14:00-16:00)

주제 :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소인호 (학회장)
14:10-14:20		휴 식
14:20-14:50	주제발표 1	▶ <날개>의 외출과 귀가 모티프 연구 • 발표 : 양윤모 (극동대) • 토론 : 정재림 (고려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14:50-15:00		휴 식
15:00-15:30	주제발표 2	▶ 병자호란 중 강화도 내 순절의 서사와 매체권력 • 발표 : 유요문 (청주대) • 토론 : 정장순 (고려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15:30-15:40		휴 식
15:40-16:0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종합토론 : 박치범 (육군사관학교) • 폐회선언 : 소인호 (학회장)

□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00-17:00)

- 진행 : 연구윤리위원장 겸 편집위원장 박보영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 제3부 총회 (17:00-18:00)

- 의장 : 학회장 소인호
- 사회 : 이사 박보영

1. 성원보고_ 이사 박보영
2. 제6차 총회 개회선언_ 학회장 소인호
3. 의장 인사말_ 학회장 소인호
4. 학회활동 보고_ 이사 박보영
5. 안건 심의 및 의결_ 학회장 소인호 / 이사(총무) 송시형
 - 제1호 안건 : 2018년 회계결산 보고 및 추인
 - 제2호 안건 : 2019년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 및 승인
 - 제3호 안건 : 임원변경 보고 및 승인 (학회장 이임 및 보임 등)
 - 제4호 안건 : 기타
6. 기타 안건 토의_ 학회장 소인호
7. 폐회선언_ 학회장 소인호
8. 학회장 이임 및 보임 (이임사 및 취임사)_ 이임 학회장 소인호 및 보임 학회장
9. 이임 학회장 송공패(頌功牌) 수여_ 보임 학회장 및 이임 학회장 소인호

* 총회 완료 후 만찬

[목 차]

2018년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 제1부 학술대회 (14:00-16:00)

주제 :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 주제발표 1

〈날개〉의 외출과 귀가 모티프(motif) 연구 7

▶ 발표 : 양윤모 (극동대학교 교수)

▶ 토론 : 정재림 (고려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2

병자호란 중 강화도 내 순절의 서사와 매체권력 25

▶ 발표 : 유요문 (청주대학교 강사)

▶ 토론 : 정장순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00-17:00)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53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54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58

제1부 학술대회

주제발표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주제발표 01]

〈날개〉의 외출과 귀가 모티프(motif) 연구

· 양윤모(극동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02]

병자호란 중 강화도 내 순절의 서사와 매체권력

· 유요문(청주대학교 강사)

〈날개〉의 외출과 귀가 모티프(motif) 연구

양윤모*

I. 서론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이상은 그의 기이한 기존의 문학적 통념을 파괴하는 작품으로 난해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상이 난해한 작품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작가의 생애와 관련하여 유년시절 큰아버지 덕의 양자로 들어갔다가 다시 친부모댁으로 돌아온 개인사와 청년기에 경험한 식민지 조선-경성의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작가의 삶과 경험이 작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연구가 작가의 생애에 매몰될 경우 작품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날개〉¹⁾(〈조광〉, 1936. 9)는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다양한 연구와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많은 부분이 분석되고 의미가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작품이라 하겠다.

‘나’는 아내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경제 체제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간다. ‘나’는 아내의 방과 장지문으로 가려진 조그만 윗방에서 스스로 윤택적 삶을 살아간다. ‘나’는 아내의 내객들이 돈을 놓고 가는 행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외출을 감행한 이후 외출과 귀가를 반복한다.

이 글은 ‘나’의 외출과 귀가가 반복될 때마다 나타나는 변화와 차이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나’가 외출을 하면서 돈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가는 과정과 귀가했을 때 접하

*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yym02@kdu.ac.kr

1) 본고에서는 1991년 간행된 문학사상사판 전집을 텍스트로 삼되 명백한 오석이 확인된 ‘회택의 거리’는 ‘회택의 거리’로 바로 잡아 인용한다. 또한 본고에서 인용 출처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추후 논문으로 발표할 때에는 바로 잡기로 약속드린다.

는 내객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 '나'가 아내의 직업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II. 박제가 된 천재의 유곽 생활

이 글은 '나'가 근대 이전 시기의 지식인이었지만 근대 이후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려 한다. '나'는 작품 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剝製가 되어 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愉快하오. 이런 때 戀愛까지가 愉快하오.(318)²⁾

<날개>의 도입부 서시는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라는 말로 시작된다. 박제는 죽은 동물을 살아있는 모습처럼 재현시킨 것으로 살아있을 때의 역동적인 자세로 생동감이 있어 보이지만 생명성이 사라진 껍데기이다. 박제가 된 천재라는 말은 죽은 천재를 박제했다기보다는 한때는 천재였지만 지금은 천재가 아닌, 천재성은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근대 이전에는 천재였지만 근대에는 과거의 천재성이 무의미해진 상황을 의미한다.

도입부에 나타난 바대로 화자는 명정한 의식을 지녔을 뿐 아니라 문학적 소양을 갖추었고 글쓰기의 방법과 관련한 개념들에도 익숙하다.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명확한 자의식을 지녔고 글쓰기를 자신의 삶에 관련지어 성찰하지만 그러한 면모는 도입부 이후의 본문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도입부 이후 화자인 '나'는 세상물정에 어둡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존재로서 사건을 서술하는데 이는 감정과 천재성을 정지시키는 포오즈이며 스스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존재가 된다(강현국, 2012: 193).

일제 강점기 경성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나'는 33번지의 유곽에서 아내에게 얹혀 살고 있다.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고 표현하지만 이는 '나'가 도시와 자본주의 체제의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다.

유곽은 성매매가 일어나는 장소이고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식민지 시대의 경성에서도 여성성이 상품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 농업사회와 달리 도시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도시에서 여성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2) 김윤식 편(1991), *이상문학전집 2 - 소설*, 문학사상사. 이하 인용 면수만 밝힌다.

근대 도시의 삶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법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술이 없는 여성은 행상, 잡업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시달리거나接客, 매춘산업이라는 새로운 노동영역으로 몰리게 된다(김정희, 2010: 57). '나'의 아내 또한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나'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내에게 빌붙어 사는 나는 햇빛이 들지 않는 윗방에서 주로 잠을 자고 지낼 뿐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나는 우선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에 착수하였으나 좁은 시야와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아내기 힘이 든다. 나는 끝끝내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말려나 보다'고 생각할 뿐이다.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걷은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칠크칠했다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하였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늑흐늑한 공기에 다—비누처럼 풀어져서 온 데 간 데가 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형짚이나 메밀겉질로 뽕뽕한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神經이었을 뿐이고 고뿐이고 하였다.(323-324)

'나'는 아내가 외출하고 나면 아내의 방에서 화장품을 구경하고 돋보기로 휴지를 그을리거나 거울을 가지고 놀기도 하지만, 바깥 세상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방에서 잠만 자는 게으른 생활 속에서도 연구와 발명을 하고 논문과 시를 쓰기도 한다. 연구, 발명, 논문, 시 등은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물론 이불 속에서 하는 학술적 작업이 결과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에서 '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 무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왜 내객들이 아내에게 돈을 주고 가는지, 왜 아내는 나에게 돈을 주는지에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는 점에서 '나'를 자본주의 현실에 무지한 전근대 시대의 지식인이이라고 볼 근거는 충분하다.

아내가 쓰는 돈은 그 내게는 다만 실없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까닭 모를 내객들이 놓고 가는 것에 틀림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왜 그들 내객은 돈을 놓고 가나, 왜 내 아내는 그 돈을 받아야 되나 하는 禮儀 관념이 내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저 禮儀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혹 무슨 代까일까 보수일까. 내 아내가 그들의 눈에는 동정을 받아야만 할 가없는 인물로 보였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노라면 으레히 내 머리는 그냥 혼란하여 버리고버리고 하였다. 잠들기 전에 획득했다는 결론이 오직 불쾌하다는 것뿐이었으면서도 나는 그런 것을 아내에게 물어 보거나 할 일이 참 한 번도 없다. 그것은 대체 귀찮기도 하려니와 한잠 자고 일어나면 나는 사뭇 딴사람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만두는 까닭이다.(326-327)

아내가 받는 돈에 대해 대가와 보수보다 예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나'가 전근대적 사고에 빠져 있음을 확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을 상품화하는 매춘이 자본주의체제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나'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근대 도시의 삶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법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술이 없는 여성은 행상, 잡업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시달리거나 접객, 매춘산업이라는 새로운 노동영역으로 몰리게 된다(김정희, 2010: 57).

III. 외출과 귀가를 통한 근대 인식

집안에서 무기력한 생활을 하던 '나'는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주는 것과 아내가 '나'에게 돈을 주는 행위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연구 결과 '나'는 아내와 내객이 돈을 놓고 가는 까닭이 쾌감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왜 아내의 내객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이 풀 수 없는 의문인 것같이 왜 아내는 나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도 역시 나에게는 똑같이 풀 수 없는 의문이었다. 내 비록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 싫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고것이 내 손가락에 닿는 순간에서부터 고 병어리 주둥이에서 자취를 감추기까지의 하잘 것 없는 짧은 촉각이 좋았달뿐이지 그 이상 아무 기쁨도 없다.(327-328)

내객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나 일종의 쾌감—그 외의 다른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나는 또 이불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쾌감이라면 어떤 종류의 쾌감일까를 계속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불 속의 연구로는 알길이 없었다. 쾌감 쾌감, 하고 나는 뜻밖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 흥미를 느꼈다.

아내는 물론 나를 늘 감금하여 두다시피 하여 왔다. 내게 불평이 있을 리 없다. 그런 중에도

나는 그 쾌감이라는 것의 유무를 체험하고 싶었다.(329)

처음에는 내객이 아내에게, 아내가 '나'에게 돈을 놓고 가는 이유를 궁금하면서도 그 답을 찾아내지는 못한다. 이불 속에서 연구한 결과 쾌감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나'는 그 쾌감이 어떠한 종류의 쾌감인지 직접 체험하기 위해 외출을 시도한다.

첫 번째 외출과 귀가 이후 '나'는 5번의 외출과 4번의 귀가를 실행한다. 그런데 각각의 외출과 귀가마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돈의 사용여부, 귀가 시간, 목적지 및 경유지, 아내와 내객의 유무 및 아내와 내객이 연출하고 있는 광경, 아내의 반응 등을 고찰해보면 '나'의 외출과 귀가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 첫 번째 외출과 귀가 : 거리 구경

돈을 사용할 때의 쾌감을 직접 느껴보기 위해 '나'는 '아내의 밤 외출 틈을 타서 밖으로 나간다. '나'는 거리에 나온 후 가지고 나온 동전들을 지폐 5원으로 교환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아 '나'가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는 아내의 밤 외출 틈을 타서 밖으로 나왔다. 나는 거리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나온 은화를 지폐로 바꾼다. 5원이나 된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나는 목적을 잃어 버리기 위하여 얼마든지 거리를 쏘다녔다. 오래간만에 보는 거리는 거의 경이에 가까울 만치 내 신경을 흥분시키지 않고는 마지 않았다. 나는 금시에 피곤하여 버렸다. 그러나 나는 참았다. 그리고 밤이 이슬하도록 까닭을 잊어 버린 채 이 거리 저 거리로 지향없이 헤매었다. 돈은 물론 한푼도 쓰지 않았다. 돈을 쓸 아무 엄두도 나서지 않았다. 나는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329)

첫 번째 외출에서 나는 거리를 쏘다닐 뿐 돈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는 말에서 처음부터 돈을 쓰는 방법을 몰랐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물건을 사는 데만 화폐가 필요했던 것과 달리 근대의 도시에는 상품 외에도 사람의 노동력 등 용역에도 화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 머리맡에 저절로 모인 오 원 돈을 아무에게라도 좋으니 주어 보고 싶었'고 '어느 사람을 붙들고 그 오 원 돈을 내주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에서 '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 즉 성의 상품화를 포함한 인간의 상품화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 거리

로 나선 것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외출에서 '나'가 거리를 돌아다닌 것은 거리가 그 어느 공간보다 개방된 공간이고 여러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폐쇄됐던 '나'의 방으로부터 개방된 공간으로 나왔다는 것은 '나'의 의식에 각성이 촉구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김진기, 2000: 64).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피로함에 지친 '나'는 가까스로 집을 찾아 돌아온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면 아내의 방을 거쳐 가야 하는데 아내에게는 내객이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가려면 아내 방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알고 아내에게 내객이 있나 없나를 걱정하면서 미닫이 앞에서 좀 거북살스럽게 기침을 한번 했더니 이것은 참 또 너무 암상스럽게 미닫이가 열리면서 아내의 얼굴과 그 등 뒤에 낮선 남자의 얼굴이 이쪽을 내다보는 것이다. 나는 별안간 내어쫓아지는 불빛에 눈이 부셔서 좀 머뭇머뭇했다.

나는 아내의 눈초리를 못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른 체하는 수밖에 없었다. (329-330)

나는 몹시 흔들렸다. 내객을 보내고 들어온 아내가 잠든 나를 잡아 흔드는 것이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 나는 좀 눈을 비비고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노기가 눈초리에 떠서 얇은 입술이 바르르 떨린다. 좀처럼 이 노기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아 버렸다. 벼락이 내리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쉼없는 숨소리가 나면서 푸스스 아내의 치맛자락 소리가 나고 장지가 여닫히며 아내는 아내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몸을 돌쳐 이불을 뒤집어쓰고는 개구리처럼 엎드리고, 엎드려서 배가 고픈 가운데에도 오늘 밤의 외출을 또 한번 후회하였다.(331)

아내는 내객에게 '나'의 존재를 들켜버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가 내객을 만나는 현장을 들켜서인지 노기뻐 얼굴로 나를 보지만 아무런 말은 하지 않고 아내의 방으로 돌아간다.

아내가 돌아간 후 '나'는 자정이 지나지 않은 줄 몰랐으며, 복잡한 거리에서 누구에게 돈 5원을 쥐야할지 몰라서 그랬다며 이불 속에서 혼자 변명과 사죄를 한다. 한 시간 동안 고민하던 '나'는 돈 5원을 아내에게 쥐어주고 아내의 방에서 잠을 잔다.

2. 두 번째 외출과 귀가 : 경성역

아내에게 돈 5원을 주고 아내의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잔 '나'는 '그 돈 오원을 아내 손에 쥐어 주고 넘어졌을 때에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지만 '내 객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와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나는 알 아낸 것 같아서' 즐거워하고 외출하고 싶어한다. 주머니를 뒤져 돈 2원을 찾아내고는 두 번째 외출을 시도한다.

두 번째 외출에서 '나'는 자정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성역의 시계가 확실히 자정을 지난 것'을 보고 귀가한다.

경성역 시계가 확실히 자정을 지난 것을 본 뒤에 나는 집을 향하였다. 그날은 그 일각대문에서 아내와 아내의 남자가 이야기하고 섰는 것을 만났다. 나는 모른 채하고 두 사람 곁을 지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아내도 들어왔다. 와서는 이 밤중에 평생 안 하던 쓰게 짚을 하는 것이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눕는 기척을 엿듣자마자 나는 또 장지를 열고 아내 방으로 가서 그 돈 2원을 아내 손에 덥석 쥐어 주고 그리고—하여간 그 이 원을 오늘 밤에도 쓰지 않고 도로 가져온 것이 참 이상하다는 듯이 아내는 내 얼굴을 몇 번이고 엿보고—아내는 드디어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자기 방에 재워 주었다. 나는 이 기쁨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편히 잘 잤다.(334)

두 번째 외출에서 도착한 경성역은 첫 번째 외출의 거리와는 다른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 '역'은 출발과 도착이 연속되는 공간이며 기다리는 공간(김진기, 2000: 65)이기도 하고 조선이 반강제적으로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게 한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기차 시간을 관리하는 경성역 시계는 아내가 나에게 부여한 시간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표준적 시계로 아내의 영업규칙을 지키는 수단인 시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차 시간들은 근대적 시간의 표준이 될 수 있었던 점에서 기차는 근대 세계의 혈관과도 같다(김혜옥, 2016: 122).

두 번째 외출에서 '나'는 자정을 넘겨 귀가하고, 아내와 내객을 대문 앞에서 만나지만 '나'는 모른 채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아내는 '나'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 내객에게 '나'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에게도 특별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지 아내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도 돈 2원을 쓰지 않고 도로 가져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다.

3. 세 번째 외출과 귀가 : 경성역 티룸

두 번째 외출과 귀가 다음 날 저녁 아내는 '나' 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말 없이 저녁을 차려주었다. 외출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는 '나' 는 하늘에서 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를 바라며 슬피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를 알고 있는 듯 아내는 '나' 의 방에 와서 '돈이 없어서 그러 나며 돈을 주고는 어제보다 더 늦게 들어와도 좋다고 속삭인다. '나' 는 세 번째로 외출한다.

어쨌든 나셨다. 나는 좀 夜盲증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를 골라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리고는 경성역 일이등 대합실 한결 티룸에 들렀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거기는 우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 온다. 설사 왔다가도 곧 가니까 좋다.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여 두었다.

제일 여기 시계가 어느 시계보다도 정확하리라는 것이 좋았다. 선불리 서투른 시계를 보고 그것을 믿고 시간 전에 집에 돌아갔다가 큰코를 다쳐서는 안 된다.

나는 한 복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336-337)

'어쨌든 나셨다' 라는 표현에서 자발적이지 않다는 점과 아내의 의도를 궁금해하는 '나' 의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다.

세 번째 외출에서 '나' 에게 야맹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야맹증은 어두움 밤이나 약한 불빛에서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워 야간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는 증상이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던 조선 후기까지 야맹증은 크게 불편한 증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농업 중심 사회의 일과는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 주로 활동하고 해가 진 밤에는 잠을 자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성에 전기가 보급되면서 밤에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기차, 전차 등 교통수단도 저녁 늦게까지 운행하면서 사람들의 야간 활동이 활발해졌다. 야간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야맹증이 문제가 된 것이다. '나' 가 전근대시대의 지식인이라면 야맹증으로 인해 근대 도시의 밤에 적응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전근대의 지식인이면서 신체적 제약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면 자본주의 체제와 매춘산업에 대한 이해는 더욱 어려웠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경성역 티룸에서 '나' 가 커피를 사마시는 것으로 보아 '나' 가 기본적인 화폐 사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첫 번째 외출에서 언급했듯 인간을 상품의 대상으로 삼은 성의 상품화 현상에 적응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본다.

경성역의 티룸이 11시에 문을 닫고 마친데다가 공교롭게 비까지 내리자 우산도 없는 '나' 는 비를 맞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오한을 못 견디고 자정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내에

개는 내객이 있었고 '나'는 '보면 아내가 좀 덜 좋아할 것을 그만 보'고 만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나'는 감기에 걸렸고 아내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약을 준다.

이튿날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내는 내 머리맡에 앉아서 제법 근심스러운 얼굴이다. 나는 감기가 들었다. 여전히 으시시 춥고 또 골치가 아프고 입에 균침이 도는 것이 씹쓸하면서 다리 팔이 척 늘어져서 노곤하다.

아내는 내 머리를 쓱 짚어 보더니 약을 먹어야지 한다. 아내 손이 이마에 선뜩한 것을 보면 신열이 어지간한 모양인데 약을 먹는다면 해열제를 먹어야지 하고 속생각을 하자니까 아내는 따뜻한 물에 하얀 정제약 네 개를 준다. 이것을 먹고 한잠 푹 자고 나면 괜찮다는 것이다. 나는 널름 받아 먹었다. 씹짜름한 것이 짐작 같아서는 아마 아스피린인가 싶다. 나는 다시 이불을 쓰고 단번에 그냥 죽은 것처럼 잠이 들어 버렸다.(338)

이번에 아내는 화를 내지 않고 대신 약을 준다. 그런데 감기가 나았지만 아내는 외출하다 감기가 걸렸으니 외출하지 말고 '약을 날마다 먹고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한다. '나' 또한 약을 먹고 잠이 오는 것을 '몸이 훨씬 튼튼해진 증거'라고 굳게 믿는다.

한 달 정도 지난 후 '나'는 거울도 볼겸 아내의 방에 가서 화장대를 구경하다 아달린 갑을 발견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실로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것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최면약 아달린 갑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내의 화장대 밑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흡사 아스피린처럼 생겼다고 느꼈다. 나는 그것을 열어 보았다. 똑 네 개가 비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네 개의 아스피린을 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잤다. 어제에도 그제에도 그제에도—나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아내는 내게 아스피린을 주었다. 내가 잠이 든 동안에 이웃에 불이 난 일이 있다. 그때에도 나는 자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나는 잤다. 나는 아스피린으로 알고 그럼 한 달 동안을 두고 아달린을 먹어 온 것이다. 이것은 좀 너무 심하다.(339-340)

아내가 준 알약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수면제 아달린인 것을 알게된 '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집을 나선다.³⁾ 이번에는 도시의 거리가 아닌 산에 올라간다.

3) <날개>의 본문에 이상이 직접 그린 삽화에는 1920-30년대에 흔히 사용되던 진통소염제 '아로날' 약 상자가 펼쳐진 상태로 그려져 있다(박치범, 2010: 403).

4. 네 번째 외출과 귀가 : 아달린

별안간 아득하더니 하마터라면 나는 까무러칠 뻔하였다. 나는 그 아달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산을 찾아 올라갔다. 인간 세상에 아무것도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중략) 나는 어디라도 양지가 바른 자리를 하나 골라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서서히 아내에 관하여서 연구할 작정이었다. (...중략)

거기는 벤치가 있었다. 나는 거기 정좌하고 그리고 그 아스피린과 아달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머리가 도무지 혼란하여 생각이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단 오분이 못 가서 나는 그만 귀찮은 생각이 버쩍 들면서 심술이 났다. 나는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아달린을 꺼내 남은 여섯 개를 한꺼번에 질경질경 씹어먹어 버렸다. 맛이 익살맞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벤치 위에 가로 기다랗게 누웠다.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 따위 짓을 했나? 알 수가 없다. 그저 그러고 싶었다. 나는 게서 그냥 깊이 잠이 들었다. 잠결에도 바위 틈을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 하고 귀에 언제까지나 어렵듯이 들려 왔다.

내가 잠을 깨었을 때는 날이 환히 밝은 뒤다. 나는 거기서 일주야를 잔 것이다. 풍경이 그냥 노랗게 보인다. 그 속에서도 나는 번개처럼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생각났다.

아스피린, 아달린, 아스피린, 아달린,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 아스피린, 아달린.(340)

'나'가 집을 나와 거리가 아닌 산으로 가는 데 이는 이전의 외출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동안 '나'의 공간 이동이 거리와 경성역이었다는 점에서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장되었다면, 네 번째 외출이 산을 향하면서 수직이동으로 바뀐다는 점, 또한 앞서 '나'의 외출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다면 산으로 향한 시간은 낮이라는 것, 그리고 아내의 방과 경성역 티룸 등의 장소들은 모두 돈이 소비되는 곳인데 반해, 산으로 이동하면서 '나'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달린 여섯 알이라는 것 등,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산으로의 행보는 앞서 외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수면제인 아달린의 과다복용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한다. 산은 바로 여섯 알의 아달린을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사유하게 하는 장소이다(김혜옥, 2016: 125).

산에서 아달린 여섯 알을 한꺼번에 질경질경 씹어먹고 먹고 잠이드는 것은 '나'와 아내의 전도된 관계를 인정하게 만드는 아달린에 대한 '나'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며(강한국, 2012: 200), 사람이 죽어 묻히는 공간인 산에서 죽음을 염두에 둔 체념에서 비롯된 것(김진기, 2000: 67)이기도 하다.

산속의 벤치에서 하루종일 잠들었던 나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나 아스피린과 아달린을 되뇌다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의 조합을 생각해낸다.

아스피린과 아달린은 둘 다 근대의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약(이경훈, 2001: 182)으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약리 작용은 천지 차이다. 아스피린이 해열진통제로써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치료하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료약인 반면, 아달린은 수면제로 인위적으로 잠을 들게 만드는 약이며 과량으로 복용 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치명적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아스피린과 아달린이 근대 제약산업의 양면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에 대응되는 조합은 맑스, 말사스(맬더스), 마도로스이다. 맑스와 말사스는 근대 경제사에서 중요한 사상가로 두 사람의 의견은 상반되는 점을 보인다. 맑스는 빈부격차로 인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창시한 혁명가였다. 맬더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인구론의 명제를 통해 인구증가가 빈곤, 악덕 등 사회악의 원인이 되므로 식량에 맞도록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맬더스 이론의 단점은 빈부격차의 원인을 사회제도의 문제가 아닌 인구문제라고 봄으로써 빈부의 차이를 정당화하였다. 맑스와 맬더스의 주장에서 근대 경제체제의 상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맑스와 맬더스와 달리 마도로스는 국제 항로를 다니는 배의 선원으로 두 사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실제 인물이 아닌 보통 명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두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장난으로 집어 넣은 것이라거나 인류의 항해를 이끌어가는 존재를 상징(김혜옥, 2016: 126-127)한다고 하지만 마도로스를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맑스와 맬더스의 이론을 통해 근대 경제학이 발전했다면 유럽의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들이 마도로스들이다. 콜롬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항해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식민국가들을 유럽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시켜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바로 마도로스였던 것이다. 아스피린과 아달린에서 출발하여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로 이어지는 '나'의 생각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탁견으로 '나'의 외출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외출을 거듭할수록 자본주의 체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학습의 의미를 갖게 된다.

아침에 잠에서 깬 '나'는 오전 8시경 집으로 돌아가지만 '내 눈으로는 절대로 보아서 안 될 것(아내의 모습)을 그만 딱 보아 버리고 만'다.

나는 그래서 부리나케 거기서 내려왔다. 아랫도리가 화해 내어지으면서 어쩔어쩔한 것을 나는 겨우 집을 향하여 걸었다. 여덟시 가까이였다.

나는 내 잘못된 생각을 죄다 일러바치고 아내에게 사죄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무 급해서 그만 또 말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이젠 참 너무 큰일 났다. 나는 내 눈으로는 절대로 보아서 안 될 것을 그만 딱 보아 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얼떨결에 그만 냉큼 미닫이를 닫고 그리고 현기증이 나는 것을 진정시키느라고 잠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둥을 짚고 섰자니까 일초 여유도 없이 획

미닫이가 다시 열리더니 매무새를 풀어헤친 아내가 불쑥 내밀면서 내 떡살을 잡는 것이다. 나는 그만 어지러워서 게서 그냥 나뉘그러졌다. 그랬더니 아내는 넘어진 내 위에 덮치면서 내 살을 함부로 물어뜯는 것이다. 아파 죽겠다. 나는 사실 반항할 의사도 힘도 없어서 그냥 넘죽 엎드려 있으면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자니까 뒤이어 남자가 나오는 것 같더니 아내를 한 이룸에 덩씩 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소곳이 그렇게 안겨 들어가는 것이 내 눈에 여간 미운 것이 아니다. 밉다.

아내는 너 밤 새어가면서 도적질 하러 다니느냐, 계집질 하러 다니느냐고 발악이다. 이것은 참 너무 억울하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을 않았다.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껍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시피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원 몇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즐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341-342)

절대로 보아서 안 될 아내와 내객의 광경을 보고 만 '나' 는 아내에게 떡살을 잡히고 물어뜯기운다. 게다가 아내로부터 입에 담지 못 할 정도의 욕을 듣는다. 아내가 화를 내는 정도가 심해지는 것은 자신의 정체, 그 현장을 '나' 가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서로 다 알지만 모른척하고 속고 속이고 속이주는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다. 비록 아내의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도된 경제 활동과 아달린을 먹여 잠들게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라도 유지되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탄났다는 사실이 아내를 분노와 발악으로 몰고 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남은 돈을 털어 문지방에 놓고 다섯 번째 외출을 시도한다.

5. 다섯 번째 외출 : 경성역, 미쓰꼬시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대로 경성역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 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푼도 없는 것을 그것을 깜박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이뻐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어디로 디립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342)

다시 집을 나온 '나'는 경성역을 거쳐 미쓰꼬시백화점 옥상에 다다른다. 경성역에서 커피를 마시려 했으나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당황한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인다. 이제 돈이 없으면 도시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또한 근대이후 유입된 커피를 마신다는 것도 근대 도시의 삶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쓰꼬시 백화점 옥상에 어항 속의 금붕어를 구경⁴⁾하고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 본다. 많은 연구에서 이 부분을 오독하여 '나'가 투신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해석하였지만 인용문에서 보듯 '나'는 거리로 나선다(이정훈, 2010: 199).

경성역에서 미쓰꼬시 백화점으로 이어지는 '나'의 행보는 상징적이다. 경성역이 외세에 의해 철도가 건설되고 중국과 일본을 잇는 통로로 수탈과 침략의 역사를 내포하는 강제적인 근대의 상징이라면 미쓰꼬시 백화점은 당대의 최고급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는 자본주의의 총아인 것이다. 근대와 자본주의의 상징을 직접 확인하면서 '나'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는 것이다.

나는 또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택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중략)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우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내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건넌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 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4) 당시 일본에는 옥상에 정원을 꾸미고 인공 연못을 만든 공중정원이 유행하였으며, 미쓰꼬시백화점도 옥상에도 간이 정원과 함께 어항에 금붕어를 전시하고 있었다(박현수, 2004: 217).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343-344)

백화점 옥상에서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나’는 근대 도시인들의 피곤한 삶이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다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신도 그 회택의 거리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걸리로 나선다.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 지 고민하는 ‘나’는 거리에서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듣는다. 이때 ‘나’는 사람들이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처럼 느낀다. 닭은 날개가 있지만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 못하는 새이다. 근대 도시인들의 삶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노동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닭과 같은 신세일 뿐이고, 어항 속의 금붕어 신세일 뿐이다.

또한 유리, 강철, 대리석, 지폐, 잉크가 부글부글 끓는 듯한 ‘현란을 극한 정오’를 경험하는데 이는 잡하고 소란스런 도시의 정오가 문명의 기초재들이 비등하는 모습으로 압축되어 그려진 것이다. 유리, 강철, 대리석은 근대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주재료이며, 지폐는 근대 경제체제의 중요한 요소이며, 잉크는 근대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는 인쇄물, 책, 신문 등의 주요 재료이다(강헌국, 2012: 201).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그 시간은 근대 문명의 정오이기도 하다. 그 시간에 ‘나’는 날개를 떠올린다.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과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는 대구관계이다. 따라서 ‘날개’의 의미는 ‘희망과 야심’으로 파악된다. ‘돋았던 자국’은 ‘말소된 페이지’에 대응된다. ‘나’는 한 때 거드랑이에 날개가 돋을 만한 희망과 야심을 품었다. ‘나’의 날개는 희망과 야심의 주체인 ‘나’로부터 비롯하므로 자연의 날개가 아닌 ‘인공의 날개’이다. 작중 현재 ‘나’는 날개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만 희망과 야심을 회복하여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한다(강헌국, 2012: 202).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 ‘날개야 다시 돌아라’, ‘한번만 더 날자꾸나’라는 구절을 통해 ‘나’에게는 이미 예전에 인공의 날개가 있었고 한번 이상 날아보았던 경험이 존재한다. 이는 ‘나’가 전근대시대의 지식인이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인공의 날개라는 것은 지식의 힘으로 관직에 오르거나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목표였던 입신양명과 상통한다. 인공의 날개가 한번 더 돌아 한번 더 날자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밤의 외출이 자정을 기준으로 마무리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낮의 외출은 정오 사이렌과 함께 결말을 맺는다. 밤의 외출이 내객이 있을지, 아내의 심기가 어떨지 불안한 귀가였다면 낮의 외출은 정오의 사이렌을 출발신호로 삼아 잃어버렸던 날개를 되찾아 날고 싶은 욕망과 희망으로 끝을 맺는다.

IV. 결론

이상의 〈날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외출과 귀가의 모티프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나’가 식민지 근대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지식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밤거리 외출이 ‘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편입된 경성의 실상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귀가할 때 아내와 내객의 관계를 목격하면서 자본주의의 이면에 숨겨진 매춘의 실상과 ‘나’와 아내 또한 전도된 부부관계가 표면화되는 과정을 밝혀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기본자료

이상, 〈날개〉 [김윤식 편. 1991. **이상문학전집 2 소설**. 문학사상사.]

○ 논문 및 단행본

강현국. 2012. “돈, 성, 그리고 사랑”, **한민족어문학**, 62, 177-209.

김정희. 2010. “〈날개〉에 나타난 도시의 이버투스과 내·외면적 풍경”, **한민족어문학**, 57, 471-503.

김진기. 2000. “〈날개〉의 공간구조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14, 55-71.

김혜옥. 2016. “이상의 〈날개〉에 나타난 탈주와 창조적 시간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67, 107-140.

박치범. 2010. “이상삽화연구”, **어문연구**, 38(1), 387-413.

박현수. 2004. “이상의 아방가르드 시학과 백화점의 문화기호학”, **국제어문**, 31, 211-240.

안지영. 2012. “이상 문학에 나타난 분신 모티프와 메타적 글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36, 155-187.

오양진. 2010. “남녀관계의 불안”, **상허학보**, 29, 221-253.

이경훈. 2001. “아스피린과 아달린”, 김윤식, **이상문학전집 5 연구논문모음**. 문학사상사.

이경훈. 2010. “박제의 조감도”, **사이間SAI**, 8, 197-220.

한아름. 2014. “<날개>에 나타난 식민지 근대의 이중성” , **건지인문학**, 11, 243-268.

[토론문]

「〈날개〉의 외출과 귀가 모티프」에 대한 토론

정재림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상에 대한 연구, 특히 그의 대표작 〈날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작가 이상의 생애와 관련한 연구는 물론, 정신분석이나 구조주의의 방법론을 차용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양윤모 선생님의 논문은 ‘외출과 귀가 모티프’에 주목하여 「날개」를 재독하고자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외출과 귀가 모티프가 반복된다는 것은 쉽게 확인되는 바이며 또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텍스트를 섬세하게 다시 읽고 그 의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의 대체적인 의미 부여에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주요 연구사

발표를 위한 원고이기 때문이겠으나, 충분한 연구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걸립니다. 특히, 「날개」에 대해서는 발표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물이 있으므로 서론에서 연구사 검토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론에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연구사 검토를 대체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반복 모티프를 다룬 연구도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반복 모티프의 양상과 의미

선생님께서서는 반복되는 외출과 귀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셨습니다.

- 1) 첫 번째 외출과 귀가 - 거리 구경
- 2) 두 번째 외출과 귀가 - 경성역
- 3) 세 번째 외출과 귀가 - 경성역 티룸
- 4) 네 번째 외출과 귀가 - 이달린
- 5) 다섯 번째 외출 - 경성역, 미쓰코시

외출과 귀가를 장소와 연결 짓고 있는 점이 눈에 띄이는데, 4에서는 ‘이달린’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인공의 외출/귀가를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연결 시키고 계신 듯합니다. 즉 “아스피린과 이달린에서 출발하여 맑스, 말사스, 마도로스로 이어지는 ‘나’의 생각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탁견으로 ‘나’의 외출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외출을 거듭할수록 자본주의 체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학습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근대와 자본주의의 상징을 직접 확인하면서 ‘나’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는 것이다.” 등에서 이러한 입장이 확인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의 반복을 장소로 연결 지을 뿐만 아니라, 의미와도 연결짓고 그러한 소재목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3. 결말의 해석

“밤의 외출이 내객이 있을지, 아내의 심기가 어떨지 불안한 귀가였다면 낮의 외출은 정오의 사이렌을 출발신호로 삼아 잃어버렸던 날개를 되찾아 날고 싶은 욕망과 희망으로 끝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발견되는 이상의 작가의식을 근대인(자본주의체제 하의)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용인하는 의식, 그러한 일상적 자본주의적 삶에의 회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병자호란 중 강화도 내 순절의 서사와 매체권력 - 『강도충렬록』과 <강도몽유록>을 중심으로 -

유요문*

I. 들어가는 말

순절(殉節)이란 대상이 사회 전체의 필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죽었을 때 사회에서 부여하는 명칭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에 대해 순절의 이름을 부여하는 사회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여기에서의 사회는 어떤 한 명의 권력자, 위장자도 아니고, 다수가 동의해서 부여하는 이름도 아니다. 순절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 요청한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했을 때 죽은 자에게 붙여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순절자는 사회의 시공간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요청하는 맥락이 무엇이었는지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국방한계선에서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쪽 해역으로 넘어 남하하자 대한민국의 해군에서는 고속정을 보내 대응을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포격을 가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고 승선하고 있던 정장(艇長) 윤영하 대위를 포함한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서해교전으로 부르다가 1999년 일어난 연평해전에 이어서 발생했기에 제2연평해전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배경으로 10년 후인 2015년에 순절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연평해전>이다. 이 영화는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표적인 문화계 ‘화이트 리스트’로 지목되었다.¹⁾ 사회가 매체(문화)를 이렇게 잘 활용한 것은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다. 시간을 잠시 돌려보자. 17세기 조선에서는 당시 淸과의 전쟁인 丙子胡

* 청주대학교 국문과 강사. niceeym@naver.com

1) 최형원, 「[탐사K] 박 청와대, 영화 ‘연평해전’ 수익금 배분 개입」, KBS뉴스, 2018.1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6519>

亂(1636~1637년)이 완벽한 패배로 끝난 후 이러한 순절의 작업이 다양한 방면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병자호란 시기에 순절로 명명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것의 서사적 기능과 함께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김창흡(金昌翊, 1653-1722)이 편찬한 『강도충렬록(江都忠烈錄)』²⁾과 작자 미상의 <강도몽유록(江都夢遊錄)>³⁾으로 한정하여, 병자호란 시기 중 강화도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순절에 대한 서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에 2장에서는 동아시아 맥락에서 이 텍스트(매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도록 하겠다. 그 후, 3장에서는 순절의 양상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4장에서는 그 기능이 현재에서도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밝혀보겠다.

『강도충렬록』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참화를 당한 11명에 대한 기록이다. 상권에서는 1642년부터 1658년에 ‘충렬사’라 사액되기까지 그 과정을 담고 있고, 하권에서는 배향된 11명의 인물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 김창협이 편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하권에 해당하는 각 인물들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강도몽유록>은 청허라는 선사가 강화도를 지날 때 병자호란 중 죽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는데 이를 불쌍히 여겨 제문을 지어주었더니, 그날 밤 꿈 속에서 14명의 부녀자 귀신들이 나타나 사대부 남성들의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데, 이것을 청허 선사가 몰래 엿듣고 적었다는 소설이다. 최근 김정녀는 <강도몽유록>이 1640년에서 1644년 사이에 지어졌을 가능성을 도출하였다.⁴⁾ 그렇다면 『강도충렬록』과 <강도몽유록>은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자호란 서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강도몽유록>에 집중되어 있다.⁵⁾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정치적인 텍스트로 보는 입장이다. 이들 연구는 병자호란 중에 나타난 일련의 서사들을 모두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현실 정치의 지배세력을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산생되었다고 주장하거나,⁶⁾ 반대로 지배세력인 노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

2) 『강도충렬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한문필사본이 유일본이다. 최근 신해진 교수에 의해서 완역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김창협 編, 신해진·김석태 譯, 『강도충렬록』(역락, 2013)을 저본으로 삼도록 하고, 번역문 옆에 페이지를 표시하겠다.

3) <강도몽유록>은 총 7종의 이본이 존재하는데, 그 중 6종이 한문본이고 1종이 국문본이다. 여기에서는 선본으로 알려진 버클리대본을 저본으로 삼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 원문은 장효현 외, 『교감본 한국한문소설2: 몽유록』(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197-218쪽)을 저본으로 삼고, 번역은 한석수 譯, 『몽유소설』(충북대학교출판부, 2003, 9-28쪽)을 따르되, 오역이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한하여 필자가 조금씩 바꿨다. 또한, 번역문 옆에는 페이지만 표시하도록 하겠다.

4) 김정녀,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 ‘역사적 공간’을 배경으로 선택한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2011.

5) 『강도충렬록』에 대한 연구는 단 한 편만 존재한다. 이서희, 「『강도충렬록』에 나타난 집단의 기억과 의미」, 『용봉인문논총』 46,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본고는 위의 논문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서희는 당대 지배 계층인 노론이 자신들의 집단 기억을 만들어 조선을 소중화하려고 한 시도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고 그의 주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본고는 당대 명분론이 요청되던 맥락에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도충렬록』이 산출되었다고 본다.

내기 위한 서사(가)임을 주장한다. 이 둘의 주장은 하나의 텍스트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독해하였는데, 학계에서는 전자를 정설로 삼았지만 최근의 논의로 들어와서는 후자의 입장을 내세우는 연구가 제법 도출되고 있다. 본고 역시 후자의 입장을 따른다. 둘째, 순절 대상에 집중해서 살펴본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순절의 대상에 집중하여 이들의 순절을 추도하는 원인을 소수의 대항기역에서 찾았다. 요컨대, 문학은 피해자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⁸⁾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 텍스트를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텍스트의 모든 것이 정략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제대로 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없다. 김일환⁹⁾의 주장대로 〈강도몽유록〉이 당시 지배세력인 노론의 정치적 목소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본고는 전제하고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김일환과는 달리 텍스트에 드러난 서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김일환이 〈강도몽유록〉을 정치적인 서사에 한정하여 그 내부의 정략적 관점을 중요시 하였다면, 본고는 이와는 다르게 〈강도몽유록〉이라는 텍스트 매체가 정치뿐만 아니라 당대의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¹⁰⁾

또한 이 텍스트를 순절의 대상에 집중해서 바라본 연구는 당대 ‘맥락’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현재적 관점을 지나치게 투영시켜 텍스트를 사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한계가 있

6) 대표적으로 정충권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정충권은 〈강도몽유록〉이 정치세력의 권력성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충권, 「〈강도몽유록〉에 나타난 역사적 상처와 허상화 방식」, 『한국문학논총』 45, 한국문학회, 2007.

7) 대표적으로 김정녀와 김일환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김정녀는 인조나 親淸과와의 기역과 대항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도몽유록〉이라고 주장하였고, 김일환은 〈강도몽유록〉이 노론 가문의 자기 변호를 위해 만들어진 서사라고 보았다. 김정녀, 「병자호란의 책임 논쟁과 기억의 서사」, 『한국학연구』 35,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김일환, 「숨긴 것과 드러낸 것: ‘변호’의 텍스트로 「강도몽유록」 다시 읽기」, 『민족문화사연구』 51, 민족문화사연구소, 2013.

8) 최근에는 이러한 논의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의 논의는 앞서 언급한 김정녀나 김일환의 논의와 상충되고 있다. 예컨대, 김정녀와 김일환은 〈강도몽유록〉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배층에서 생산한 텍스트라고 보고 있는 반면, 이들은 백성들에게서 공감을 얻어서 대중적으로 읽힌 민중에서 생산한 텍스트라고 본다. 요컨대, 전자는 그 치유의 대상이 국가와 지배층인 반면, 후자는 민중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조현설, 「17세기 전기·몽유록에 나타난 타자 연대와 서로 주체성의 의미」, 『국문학연구』 19, 국어국문학회, 2009; 박양리, 「병자호란 피로(披擲) 여성 트라우마의 서사적 대응과 그 의미」, 『여성학연구』 27-3,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7; 김종균, 「〈강도몽유록〉을 통한 고통의 연대와 통합서사의 사회적 담론화 모형」,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백지민, 「순절 담론의 서사화, 〈강도몽유록〉」, 『융복합인문학』 49,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9) 김일환, 앞의 논문.

10) 이와 더불어 본고는 김일환의 이전 논문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죽음의 서사와 권력 작동 방식”이라는 작은 질을 통해 순절한 인물들이 질의의 아이콘으로 이미지가 바뀐 것을 논하였다. 본고는 이 논의로부터 촉발되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순절에 대한 서사가 어떤 양식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여 사회 권력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더 진지하게 탐구해볼 필요가 있어 이 논문을 기획했다.

김일환, 「병자호란 체험의 ‘再話’ 양상과 의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85-187쪽.

다. 즉, 이 텍스트에서 순절자들을 추도하는 이유가 소수의 연대, 소수의 대항 기억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다. 다만, 김종군의 논의대로 이 서사가 어느 정도 통합을 모색하는 서사인 것에 동의하는 바이며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라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정치적인 텍스트가 당대의 어떤 맥락에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키너(Skinner)의 ‘맥락주의(脈絡主義)’ 방법론을 차용하도록 하겠다.¹¹⁾ 스키너에 따르면, 사상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언어 개념이라도 사회의 시공간적 모습, 즉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영원불멸의 보편적 개념이 있다고 믿는 것은 허구이며, 오직 ‘언어적 자원/자산’ 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한 사회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언어적 자원을 그 시대의 맥락에 맞게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순절이라는 개념 역시 시공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17세기에 사용된 순절의 언어 개념 맥락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I. 순절의 역사적 맥락

순절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동아시아적으로 매우 오래된 보편적 관습이다. 이것을 앞서 말한 동아시아 공통의 ‘언어적 자원’ 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 동아시아 기록의 대표적인 『사기(史記)』의 「열전(列傳)」에는 본인을 뜻을 행하다가 절사(節死)한 다양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은 『사기』를 편찬한 사마천의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그 내재적으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절행을 행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수행한 전통 때문일 것이다. 그 예로, 「열전」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백이전(伯夷傳)〉의 백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무왕이 은나라의 난리를 평정하고 천하가 주나라를 받들었지만 백이와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首陽山)에 숨어 고비를 따서 먹었다. 굶어 죽기에 앞서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는 이랬다.

저 서산(西山)에 올라
이 고비를 뜯는다.

11) 스키너, 제임스 탈리 編, 유종선 譯, 『의미와 콘텍스트』, 아르케, 1999.

폭력을 폭력으로 바꾸고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구나!
 신농, 우, 하는 이미 사라졌으니
 우리는 어디로 돌아 갈까나?
 아,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간다.
 가련한 운명이여!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이렇게 볼 때 원망한 것인가, 아닌가?¹²⁾

당시 은나라의 왕인 주(紂)가 폭정을 행하자 그의 신하인 주나라의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고자 병사를 일으켰다. 위의 인용문은 주나라 무왕(武王)이 자신의 군주인 상나라 주왕(紂王)을 끌어내리려는 쿠데타를 일으키자,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 무왕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대로 수양산으로 들어가 굶어죽는 장면이다. 기록자인 태사공(사마천)은 이들에 대해 “백이나 숙제를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나? 인덕을 쌓고 그렇게 착하게 행동했는데도 굶어 죽다니!(若伯夷叔齊, 可謂善人者, 非邪? 積仁繫行, 如此而餓死!)” 라고 평하며 백이와 숙제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죽은 이들에 대해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이것은 사마천 개인의 일화와도 관련이 깊다. 요컨대, 당시 한나라 무제에게 이릉(李陵)이 흉노에 배반한 것을 두고 시비(是非)를 간하다가 궁형을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처럼 무자비한 권력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처럼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깨끗한 선비를 사람들은 청사(淸士)라고 일컬었다.

조선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육신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16세기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六臣傳)>이나, 임제의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과 같은 기록들은 이들 사육신의 순절에 대한 찬사와 추도가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육신전>의 내용 중 일부이다.

(성삼문은) 일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세조가 친히 국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하니, 성삼문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옛 임금을 복위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천하에 그 누가 자기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거늘 어찌 배반이라 하십니까. 나리는 평소에 걸핏하면 주공(周公)을 끌어냈는데 주공에게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삼문이 이렇게 한 것은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고

12) 사마천, 『사기』, 「열전」, <백이전>, “武王已平殷亂, 天下宗周, 而伯夷叔齊恥之, 義不食周粟, 隱於首陽山, 采薇而食之. 及餓且死, 作歌. 其辭曰, 登彼西山兮, 采其薇矣. 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 神農虞夏忽焉沒兮, 我安適歸矣? 於嗟徂兮, 命之衰矣! 遂餓死於首陽山. 由此觀之, 怨邪非邪?”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중략) 성삼문은 사람됨이 해학적이고 자유분방하며 농담하기를 좋아했다. 일상생활에 절도가 없어 겉으로는 지키는 바가 없는 듯하였지만 안으로는 지조가 확고하여 빼앗을 수 없는 뜻을 갖고 있었다.¹³⁾

태사씨(太史氏)는 말하노라.

누군들 신하가 되지 않겠는가머는 육신(六臣)의 신하 됨은 지극하기도 하다. 누군들 죽음이 있지 않겠는가머는 육신의 죽음은 참으로 장대하다. 살아서는 임금을 사랑하여 신하 된 도리를 다하였고, 죽어서는 임금에게 충성하여 신하 된 절개를 세웠으니, 충분(忠憤)은 백일(白日)을 꿰뚫고 의기(義氣)는 추상(秋霜)보다 늠름하여 백세(百世)의 신하 된 자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임금 섬기는 의리를 알아 절의(節義)를 천금처럼 여기고 목숨을 터럭처럼 여김으로써 인(仁)을 이루고 의(義)를 취하게 하였다.¹⁴⁾

남효온의 <육신전>의 전체적인 맥락은 사마천의 <백이전>과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무자비한 권력에 대항하여 의로움을 행하여 옛 임금인 단종(端宗)을 복위시키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추모하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 서사의 전통적인 문법인 언어적 자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육신전>은 <백이전>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는데, 사육신이 당대에는 반역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후대에 갈수록 충신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다는 점이다.¹⁵⁾ 이는 「세조실록」에 나타난 육신들의 모습이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에 반해 개인 창작물인 <육신전>은 육신을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순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대의 맥락 상황 내에 변동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겠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17세기 병자호란 이후 동아시아 세계가 재편되면서 조선은 공권력의 강화와 질서를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시대적으로 요청받게 된다. 요컨대,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쟁의 참화에 대한 트라우마를 막을 필요가 요청되었고, 이를 위해 군주와 신하의 공모 하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는 시대적 맥락이 발생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 요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인들은 기존의 질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13) 남효온, 『추강집』 제8권, 「六臣傳」. “及事覺被收, 光廟親鞫問叱之曰, 若等何爲反我? 三問抗聲曰, 欲復故主耳, 天下誰有不愛其君者乎? 我之心, 國人皆知之, 何謂反耶? 進賜平日, 動引周公, 周公亦有是乎? 三問之爲此者, 天無二日, 民無二王故也. ……(중략) 三問爲人, 諛譖放浪, 喜談謔, 坐臥無節, 外若無持守, 內操堅確, 有不可奪之志云.” 이하 모든 원문과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하였다.

14) [육신전]. “太史氏曰, 孰不爲臣, 至哉六臣之爲臣. 孰不有死, 大哉六臣之有死. 生而愛君, 盡爲臣之道, 死而忠君, 立爲臣之節, 忠憤貫乎白日, 義氣凜乎秋霜, 使百世之爲人臣者, 知所以一心事君之義, 千金一毛, 成仁取義.”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면 좋다. 신성환, 「死六臣 담론의 轉變과 조선후기 詩歌의 수용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에 따르면 사육신의 신원을 회복하는 숙종 때가 되어서야 현재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사육신의 이미지가 완성된다.

하였다. 그래서 병자호란 전후로 굳건하게 존재해 왔던 대명의리(對明義理)를 해체하지 않고 이를 더욱 강화, 고수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¹⁶⁾ 이에 사회는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쟁에서 죽은 이들인 순절자들을 내세워 당대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누가 더 ‘義’, ‘忠’, ‘節’을 행하게 되었는지를 따지는 작업과 궤를 함께 한다. 따라서 이것은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자발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들어진 장치로 볼 수 있다.¹⁷⁾ 이에 국가적으로는 이러한 모범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신하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 모범 사례에 대한 텍스트를 전략적 목적 하에 ‘생산’해 내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도충렬록』과 <강도몽유록>이다. 결국 이들 텍스트는 동아시아의 전통 문법의 글쓰기인 순절의 서사를 변용하여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전 수단을 전략적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순절의 서사 양상과 전략

1. 죽음의 묘사

그렇다면 『강도충렬록』과 <강도몽유록>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시대의 맥락에 맞게 텍스트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텍스트 내부에 나타난 이들의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죽음’이다. 순절한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꺾진하게 묘사하는 것은 바로 이 순절의 서사의 대표적인 글쓰기 전략이라 하겠다. 이들이 죽는 방법에 대해 더욱 극적으로 언급할수록 이

16) 이에 대해서 최근 허태두의 논의가 많은 참조가 되었다. 그는 “당대의 척화론은 외교적·군사적 대안의 선택이라기보다 이해를 초월한 의리의 차원에서 주장되고 지지받았다. 아울러, 이같은 메시지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국왕의 교서에 실렸다는 점에서 당대의 주류적 심성이 무엇이었는지 역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183쪽)라고 하여 대명의리론이 당대 지배층과 하층민 모두의 기조였음을 알려준다.

허태두, 「병자호란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규장각』 4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17) 알튀세르에 따르면, 억압적 국가장치는 하나로 존재한다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경우 여러 개가 복수로 존재하며, 전자가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에 비해 후자는 사적 영역에 속한다. 좀 더 근본적인 차이는 “억압적 국가 장치는 ‘폭력을 통해 기능하는’ 반면에,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들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기능한다는 것이다.” (366쪽)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들은 일견 복잡해보이지만 실상 지배 이데올로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통일되어 있다. 하여 법, 국가 등의 상부 구조는 결국 지배 계급에 의한 피지배 계급의 착취를 가능케 하는 생산 관계의 재생산을 보장해주는 데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루이 알튀세르,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선, 1995.

들은 모범적인 희생자로 기록될 것이다.

『강도충렬록』은 대부분 청나라 군대의 손에 죽은 자이거나, 강화도가 함락되기 전 일어서 자살한 인물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은 바로 ‘김상용(金尙容, 1561-1637)’이다. 왜냐하면 그는 강화도가 함락되기 전 화약창고에서 불을 질러 분신자살하여 시체도 없이 폭사(爆死)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강도충렬록』을 편집한 이가 그의 종중손자인 김창협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선명한 이미지가 되어 많은 노론계 사대부들에게 칭송되어 왔다. 그리고 『강도충렬록』에도 그의 죽음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다. 또한, 그의 행장에 대해 기록한 사람은 바로 대표적인 척화론(斥和論)자인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인 것은 심상치 않다. 다음 그가 죽는 부분을 김상헌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선생은 적을 물리치지 못할 줄 알고는 가족들에게 결별을 고하고 남성 가운데에 올라가 입고 있던 용의를 벗어 하인에게 건네고 나서 불을 놓아 스스로 불에 타 죽었는데, 그 뜻은 초흔하게끔 남긴 것이었다. 선생의 손자 김수전은 나이 열세 살로 이때 선생의 곁에 있었는데, 하인으로 하여금 끌고 돌아가게 하니, 옷깃을 잡고 울면서 떠나가지 않으며 말하기를, ‘할아버지 따라 죽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하였다. 하인도 떠나지 않고 마침내 함께 죽으니, 실로 22일 임술일이었다. 적이 물러간 뒤 자제들이 시신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이에 그해 4월 16일 양주 도혈리 선영 곁의 손향 자리에다, 남겨 놓은 의관을 가지고 장사지냈다. 오호 통재라!” 『강도충렬록』, 107쪽.¹⁸⁾

김상용의 죽은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죽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매우 상세히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들에게 인사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것부터 용의를 벗고 초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까지 그의 죽음에 대해 매우 비장하게 그리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손자인 김수전과 하인도 김상용과 함께 분신을 하는 장면도 삽입된다.¹⁹⁾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불

18) 金尙憲, 『江都忠烈錄 下』, 「右議政文忠公仙源金先生行狀」.

19) 권순장 역시 김상용이 죽을 때 함께 분신한 인물로 충렬사에 함께 배향되었다. 『강도충렬록』 내에 그의 묘갈명을 조복양(趙復陽)이 지었는데, 김상용의 죽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상국 김상용이 와서 화약궐에 걸터앉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자네들은 모두 떠나가라’ 하였으나, 공은 떠나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분개하다가 활을 잡고 불화살을 뽑아서 문루의 기둥을 향해 세 번 쏘자, 이윽고 불길이 치솟아 김 상국이 죽었고, 공도 김익겸과 함께 거기서 죽었다. 실로 이때는 정월 22일이었으며, 공의 나이는 31세였다. 그 다음날에는 공의 처와 누이가 이를 듣고 모두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아우 권순열, 권순경은 모두 적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어머니만 홀로 온전하였다. 적이 물러나자, 시신을 수습하여 성 밖에다 거적으로 싸서 임시로 장사지냈다.” 『강도충렬록』 249-250쪽.

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까닭은 아마도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유도하고, 동시에 그의 죽음이 숭고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장면을 삽입하여 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시체 없는 망자는 불완전하게 죽은 자이다. 다음 『강도충렬록』 내의 「강도삼충전(江都三忠傳)」에서 죽은 세 명의 위인을 각각 살펴보자.

구원일은 칼을 빼들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임금과 아버이를 버리고 국난에 처해 살려고만 도망하니,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것이다. 내 한스러운 것은 이 칼로 너희들을 베지 못하는 것이거늘, 내 어찌 너희들 손에 죽을 사람이겠는가?” 하면서 노하여 꾸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다가 칼을 쥐고 강에 몸을 던져 죽었으니, 나이 56세였다. 『강도충렬록』, 269쪽.²⁰⁾

황선신(黃善身)은 천총(千摠) 강흥업(姜興業)과 함께 남아있던 노약자 수십 명을 모아 진해루(鎭海樓) 아래로 싸우러 나가면서 강흥업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들은 단지 한 번 죽는 것만이 있을 뿐이네.” 하고는, 몇 명의 적을 화살로 쏘아 죽이고 몸을 떨치어 치고받으며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죽었으니, 나이 68세였다. 『강도충렬록』, 270쪽.²¹⁾

이들은 『강도충렬록』에 나온 다른 이름난 문신들과는 다르게 당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무신(武臣)들인데, 후대에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입전한 것이다. 그들의 죽음 또한 김상용의 죽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절의를 다 하다가 죽은 것으로 묘사된다. 정파적인 이해관계의 테두리에 없는 이들이 입전된 것 역시 당대 맥락과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충과 義, 節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은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죽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깊게 추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강도몽유록〉의 죽음의 장면이다.

선사는 매우 이상하게 여겨져 가까이 가서 엿보았더니, 열(列)과 항(行)을 이루었으며, 모두가 여자였다. 어떤 이는 홍안이 이미 시들어 흰 살쩍이 드리웠고, 어떤 이는 청운(靑雲)이 아직 늙지 않았으며 녹운을 쪽 틀었다. ……(중략) 이에 걸어 나아가 살펴보니, 장(丈) 남짓한 줄과 한 자쯤 되는 칼이 가느다란 목에 매어 있기도 하고, 경골(硬骨)에서 피가 나기도

20) 李頤命, 『江都忠烈錄 下』, 「江都三忠傳」.

21) 李頤命, 앞의 텍스트.

하며, 머리가 모두 부수어지기도 하였으며, 입과 배에 물을 머금기도 하여, 그 참혹한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었고, 또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강도몽유록>, 10쪽.

좌중의 한 부녀지는 몸에 상처를 입고 뼈가 바스라졌으며, 온 몸이 붉은 피로 물들어 그 참혹한 모습은 다른 사람과 달랐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니산에 숨었더니 바위굴이 깊지 않아서 적의 칼끝이 눈앞에 있었지요. 의(義)를 버리고 삶을 구하느니 차라리 한 번 죽는 것만 못하기에 절벽에 몸을 던져 백골이 티끌이 되었으니, 이는 기꺼이 한 것이어서 한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강도몽유록>, 20-21쪽.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강도몽유록>은 구천에 떠도는 귀신들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칼이 꽃힌 채로 덜렁덜렁한 목을 달고 다니는 여인, 머리가 함몰되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여인, 물 속에서 죽어서 살이 퉁퉁 부은 여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다. 그래서 서술자는 그 참혹한 광경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체 광경의 묘사가 위와 같다면, 두 번째 인용문처럼 여인들은 각자 나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토로할 때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본인의 입으로 세세하게 알려준다. 두 번째 인용문에 나온 여인은 온 몸에 상처 입고 뼈가 부서져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녀가 스스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면 결국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절벽에 몸을 던져 의리를 행하였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처럼 앞서 『강도충렬록』의 기록과 같이 <강도몽유록>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옳은 것을 행한 행위에 대한 추모가 이어진다.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할수록 읽는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죽음을 의로운 행위로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당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들을 추모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인 글쓰기이다.

2. 행위의 정당화

그 다음으로 펼친 서사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정당화가 들어간다. 즉, 그들의 순절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것이며, 따라서 존중받아야 하고 기억되어야 할 죽음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다. 현대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면, 앞서 언급했듯이 당대 조선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던 것은 바로 ‘忠’, ‘義’, ‘節’ 이었다. 이에 순절한 사람에 대해서 평할 때 범인(凡人)은 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찬양한다. 다음은 『강도충렬록』 중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이상길(李尙吉,

1556-1637)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작성하면서 마지막에 찬한 시와 이단하(李端夏, 1625-1689)가 심현(深玄, 1568-1637)의 시장(諡狀)을 쓰면서 평한 글이다.

병자년 병축년 연간의 국난에	丙丁大難
종묘사직이 서쪽으로 옮겨졌으나	宗社西遷
사람들은 천연의 요새지로 여기고	人謂金湯
사람의 계책이 좋지 못하여	人謀不臧
하루아침에 함락되니	一朝淪陷
사람들이 양떼처럼 내몰렸네.	衆驅如羊
공은 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公入自外
종묘사직 앞에 곡하였으니	哭于廟社
그 곡소리가 푸른 하늘에 사무쳤고,	聲徹穹蒼
마침내 그 목숨을 버려서	遂捐其軀
의에 나아가 도리를 행했으니	義就仁成
타고난 바가 어긋나지 않았네.	天賦不爽
밝아서 해와 별이 될 것이고	皎爲日星
맑아서 서리와 눈이 될 것이니	潔爲霜雪
옛사람 누구라서 짝하겠는가.	左右誰亢

『강도충렬록』, 155-156쪽.²²⁾

사람들이 말하는 고금의 순절지사(殉節之士)는 혹 성을 지키거나 혹 전투하다가 비분강개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 그러나 공은 이미 직책이 없었던 데다 임시로 붙여 살았던 마을이 궁벽하여 피할 길이 있었고 반드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의리는 없었는데도 확고하게 자신의 뜻을 지켜 발길을 돌리지 않고는, 목숨을 바쳐 종묘사직을 이해 순절하고자 상소를 올려 임금과 영결한 뒤 그의 부인과 같이 큰 절개를 함께 이루었던 것이니, 어찌 이런 사람이 다시 있겠는가. ……(중략) 하지만 조양발은 고을의 수령으로서 성을 지켰으니, 꼭 목숨을 바쳐야 할 의리는 또 공과 비교가 되지 않았고, 공이 수립한 바로서 조양발을 견주더라도 더욱 빛난다고 할 것이다. 『강도충렬록』, 182-183쪽.²³⁾

이들의 글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것은 고인(古人)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인들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을 찬사(讚辭)하고 있다. 근대 이전 사람들에게 고인이란 범인보다 훌륭한 행위로 기억되고, 모범으로 남겨진 존재들이다. 따라서 『강도충렬록』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위는

22) 宋時烈, 『江都忠烈錄 下』, 「忠臣贈議政府左議政工曹判書忠肅李公神道碑銘并序」.

23) 李端夏, 『江都忠烈錄 下』, 「忠臣贈吏曹判書敦寧都正沈公諡狀」.

만고(萬古) 이래로 고인들의 행위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넘어서는, 존경받아야 할 것으로 정당화된 다. 무엇보다 이 글들은 순절자들의 직분이 없기에 죽음으로써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행해서 죽은 것을 강조한다. 이들이 순절한 까닭은 ‘사람이라면 마땅한’ 행동을 한 것인데, 당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이들은 남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만약 이들의 순절이 할 필요도 없었는데도 죽은 것이라면 의미 없는 죽음이 될 것이지만, 이들은 남들과 다르게 ‘사람이라면 마땅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죽음은 정당화되고, 유의미한 죽음이 된다. 이러한 모습은 <강도몽유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염라대왕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름답도다! 사람이여! 맑은 바람처럼 쇠락하고, 가을 서리 같이 늪떨하며, 우레와 번개를 피하지 않고, 도끼를 초개같이 알았으니, 갑자년의 변란 때는 원혼을 죽이라고 청하였으며, 정묘년의 난 때에는 척화론의 우두머리였다. 강도(江都)를 불태우자고 청하고, 나라가 떨쳐 일어날 대책을 바쳤으며, 청론을 세운 뒤에 형제지국의 맹약이 깨졌으니, 충성심이 지극했고, 선견지명이 있었다. 주운의 끈은 지절과 급암의 충간을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 사람이 바로 너의 시아버지이다. 너도 그 뜻을 본받고, 그 절개를 이루었으며, 절의에 죽었으니, 그 절과 그 의를 상 주어 장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소요하게 하노라.” <강도몽유록>, 23-24쪽.

위의 인용문은 <강도몽유록>에서 김상헌의 며느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순절한 자는 아니지만 김상헌의 척화 행위는 저승세계에서도 숭상되고 있으며,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이 여인도 김상헌을 본받아 똑같이 절개를 이루었으니, 둘 다 극락세계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여인의 죽음이 유의미한 죽음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승과 선계에서도 질서로 통하는 義와 節이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잘 지킨 사람은 후한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염라대왕이나 이후에 나오는 옥황상제의 입을 빌어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한 여인을 높이 산다. 이에 여인의 순절은 이제 무릇 사대부들의 순절과 동일시되며 동시에 영원히 기록될 행동으로 추모된다.²⁴⁾ 이처럼 순

24) 이는 같은 작품 <강도몽유록> 내에 다른 여인의 언급과도 매우 흡사하다. 여인도 강화도 난 때 병든 남편을 지키다가 칼에 맞아 죽었는데,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다. 염라왕이 말하길, “광해의 말년에 조정이 혼탁하여 임금은 임금답지 않았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았으나 오직 너의 조부는 취한 사람 가운데서 혼자 깨어 있었고, 뜻이 고결했다. 강도의 난리가 너무나 커서 절의를 저버리고 삶을 도모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유독 너희 여자들이 그 치욕을 받음에 즐거이 죽음에 나갔으니, 전후의 같은 절의가 남녀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먼저 그 조부가 있고 이어서 이 손녀가 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26쪽)라고 하였다. 이것은 절의 앞에서는 남녀의 유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며, 또한 이렇듯 목숨을 던져 절의를 지키는 여성보다 못한 존재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절자들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서사는 그들의 행위가 마땅한 것으로 규정되어 당대 의리를 강조하는 맥락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비리의 규탄

마지막으로 순절의 서사는 비리(非理)를 행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 대상은 서인과 남인 할 것 없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비난이다. 이에 당시 강화도 수비를 책임진 김경징(金慶徵, 1589-1637), 장신(張紳, ?-1637), 이민구(李敏求, 1589-1670) 등에게 그 비난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김경징과 장신은 천연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강화도를 청나라에 함락 당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전쟁 후 인조에게 자결을 명령 받고 죽는다. 이민구는 남인인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아들로 비록 죽지는 않지만 평생 소인으로 취급 받는다. 이들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강도충렬록』과 <강도몽유록>에서 똑같은 어조로 나타난다. 먼저 『강도충렬록』을 보자.

강도 검차사 김경징, 부사 이민구, 유수 장신 등은 모두 자기 처자식만 지키고 사사로운 정을 둔 것이 심했으며, 적을 방어할 대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날마다 놀며 즐기는 것을 일삼았다. 사람들이 바르게 깨우기라도 하면 반드시 버럭 성을 내거나 지레 욕박질렀으니, 곁에서 보고 한심해 하지 않음이 없었다. ……(중략) 이민구는 갈 뜻이 전혀 없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하니, 좌중은 모두 언짢아하였다. 김경징과 이민구는 다시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니, 이리저리 둘러대는 말만 할 따름이었다. ……(후략) 『강도충렬록』, 105-106쪽.²⁵⁾

사대부가 평소에 옛사람의 책을 읽고는 큰소리를 치고 손뼉을 치며 절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하루아침 갑작스런 변고에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선생의 손자인 김수전(金壽全)과 하인은 일개 어린아이와 천한 노복에 불과하였는데, 옛일을 상고할 수 있는 능력과 강론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서가 아니었지만 이내 능히 국난을 만나 탄 마음을 먹지 않고 죽는 것을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여겼다. 어찌 천성(天性)과 떳떳한 도리에서 유감이 없지 않았으랴만, 또한 평소 무젓은 바에서 체득함이 있어서였던 것이리라. 군주의 명을 등지고 노모를 버려둔 채 머리를 감싸고 쥐새끼처럼 숨은 자들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강도충렬록』, 111쪽.²⁶⁾

25) 金尙憲, 앞의 텍스트.

앞서 보았던 김상용의 행장이다. 이 행장의 작성자인 김상헌은 김경징과 이민구, 장신에 대한 행적에 대해 김상용의 행위와 대비시키면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김상용이 올바른 행위에 의거하여 이들에게 문책하면 이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만 묘사한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당대 이들에게 부여했던 이미지를 통해 구현된 것인데, 다른 문헌인 어한명(漁漢明, 1592-1648)의 『강도일기(江都日記)』의 언급과 김경징에 대한 묘사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²⁷⁾ 이것이 수행하는 전략은 김상용 등 강화도에서 순절한 인물들의 행위와 대별시켜서 순절자들의 행위가 더욱 부각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것은 두 번째 인용문에서 김상헌이 김상용에 대한 죽음을 언급한 후 절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취새끼’로 비유하며 그의 절행과 비교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즉, 평소에는 절의에 대해 무단히 많이 언급하는 자들이 바로 김경징과 같은 자들이었지만 막상 위험이 닥치면 혼자 살기 급급한 소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사육에 대한 추구는 공동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죄해야 하며, 김상용의 순절은 義와 節을 권장하니 공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승양해야 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다음 〈강도몽유록〉을 보자.

“진실로 그 까닭을 찾으니 나를 죽게 한 사람은 바로 낭군입니다. 왜냐하면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 그 소임에 부응해야 하는데도, 공론을 살피지 않고, 사정(私情)에 치우친 마음으로, 강도의 중임을 교만한 아이(김경징)에게 맡겼습니다. 부귀를 누리 화조월석을 취하여 즐기며 원력을 모두 잊었으니, 군무를 어찌 알겠습니까? 강이 깊지 않음이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음이 아니로되, 대사를 그르쳤으니, 죽음이 또한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허물이지

26) 金尙憲, 앞의 텍스트.

27) 어한명의 『강도일기』는 훗날 김창협에 의해 발굴되어 김창협의 後記와 권상하의 跋文 등을 덧붙여 편찬되었다. 그는 이름 없는 선비였지만 후에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을 강화도까지 잘 보호하였기에 후에 忠敬이라는 시호를 하사받는다. 이 『강도일기』에 김경징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김창협이 일기를 읽고 난 후기에서 말하기를, “김경징의 일은 야사(野史)에 기록된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간혹 전해들은 것은 지나치게 깎아내린 것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았는데, 유독 공만이 그 목격한 바를 기록하였으니 가장 명백하여 믿을 수 있다. 다른 것은 논할 것 없이 다만 배를 다룬 일 하나만으로도 그 불충(不忠)과 불손(不遜)을 볼 수 있으니,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리라.” (50-51쪽)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에 김경징에 대한 다양한 안 좋은 이야기가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기 내부에서 김경징을 어떻게 보았을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검찰은 곧 김경징이었다. 나는 곧바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 만나 뵈었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간혹 하늘을 쳐다보며 휘파람 불기도 하고 부채를 들어 휘젓기도 하더니 말했다. ……(중략) 조금 있다가 덕포 첩사 조집이 배를 타고 달려오니, 김경징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이 사람이 타고 온 배는 틀림없이 견고하고 좋을 것이니, 우리 집의 식솔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야겠다.’ ……(후략)” (20-21쪽) 이 기록의 요지는 왕자인 봉림대군이 배를 타고 건너고자 하는데 김경징이 그것을 가로채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살폈다는 것이다. 이를 보았을 때 김경징은 당시 부정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해진 譯註, 어한명 著, 『강도일기』, 역락, 2012.

니 어찌 그만 나무라겠습니까? 아! 내가 죽은 것은 기꺼이 자결한 것이니, 진실로 마땅한 것이며 한이 될 것은 없습니다. 너 독자(김경징)는 살아서 나라를 돕지 못하였고, 죽어서도 죄가 있으니, 천년의 악명은 큰 바닷물로도 씻기 어렵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잇을 날이 없습니다.” 〈강도몽유록〉, 11쪽.

“아! 강도를 지키지 못한데서 모든 일이 비롯된 것이니, 군법으로써 목숨을 죽임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민구는 같은 때 같은 임무를 맡았는데, 무슨 충의가 있었다고 목숨을 보전하여 명대로 살 수 있었습니까?” 〈강도몽유록〉, 12쪽.

“수군을 연습시키는 것이라면 장신이 있었지요. 군무를 검찰하는 것은 경징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종사를 호위하는데는 충성심이 적었고, 변화를 좇아 떠났으니 하늘이 크게 망하도록 한 것입니다.” 〈강도몽유록〉, 17쪽.

〈강도몽유록〉에서도 『강도총렬록』과 마찬가지로 김경진, 이민구, 장신 세 명을 강화도 함락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김경징의 어머니(金孿의 처)를 전면적으로 내세워 자신의 아들인 김경징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김경징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과는 다르게 절의를 행하여 자결한 인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아들을 욕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적인 영역인 천륜(天倫)보다는 당대 시대의 요청에 의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절의(節義)라는 공적 영역이 이 집필자에게는 더 중요한 영역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작가는 절행을 행한 김경징의 어머니를 통해 김경징의 악행과 대비시키면서 김경징이 살아서는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죽어서도 후세에 끝까지 악명을 떨칠 것이라고 말하여 그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강도총렬록』과 〈강도몽유록〉을 살펴본 결과, 그 양상은 크게 죽음의 묘사가 극대화되어 있었고, 순절을 정당화해주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순절자와 대비되는 비리를 행한 자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순절의 서술 전략은 당대 맥락 내에서 창출된 것이었으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서술 행위들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더욱 신뢰성과 공감성을 높이게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용의주도하게 만들어진 이 텍스트를 읽은 사람들은 순절자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공감할 것이고 따라서 순절자들은 공고하게 절의의 상징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이 사회 권력에게 주는 이득은 무엇일까? 매체와 권력의 공모 관계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순절 서사의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그 기능이 권력과 어떤 연관 관계 속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순절 서사의 기능과 매체 권력

김일환(2010)이 〈三學士傳〉을 통해 언급한 바, “문제는 이들의 순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세력이 필요한데, 대개의 경우 주인공을 죽인 외부의 적대세력—청나라—이 아니라 내부의 인물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사실”²⁸⁾을 상기해보면, 강화도 내 순절자들의 기록 역시 청나라에 대한 묘사는 소거하고 그 대척지점에 김경징, 이민구, 장신 등의 내부의 인물을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내부의 적을 창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죽음을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정신분석학의 지젝이 말한 바 있는 희생도 이와 비슷한 면모가 있다.²⁹⁾ 요컨대, 내부의 희생양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 있다.³⁰⁾ 앞서 살핀 「강도삼충전」에서 “김경징과 장신같은 애송이들의 죄는 비록 강물이 다하여도 씻지 못할 것이다.”(268쪽)와 같은 언급이 나타나는 까닭도 모든 잘못을 이들에게 몰아감으로써 그 외의 사람들의 잘못을 면죄시키고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담론으로 통합시키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의 담론이 된다는 뜻은 모범과 非모범, 즉, 정상과 비정상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당대 악인으로 표상되는 김경징, 이민구, 장신과 같은 내부의 적들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위인들이다. 맡은 바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대부는 이제 사회적으로 폐기처분되어야 할 사람이 된다. 이것은 일종의 오염된 것을 배제/소거 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

28) 김일환, 앞의 논문, 2010, 185쪽.

여기에서는 그 텍스트 대상으로 『강도충렬록』이나 〈강도몽유록〉을 다루지 않고, 〈삼학사전〉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다만, 본고의 논의와 다른 지점은 이들의 죽음이 권력의 작동 방식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고는 이와는 달리 권력이 매체를 통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29) 슬라보예 지젝은 사람들을 눈멀게 하는 메커니즘은 희생의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희생의 기본적인 기능은 큰 타자의 균열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적 공동체를 결합하는 것은 그것이 가진 희생의 의례이다. 이것은 문화인류학에서 르네 지라르가 말하는 희생 제의와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 지라르는 희생을 통해 희생물 자체가 신성해 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젝은 희생물이 도구로써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라 보았다.

슬라보예 지젝, 주은우 譯,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한나래, 1997, 102-128쪽.

30) 김종균은 이에 대해 “〈강도몽유록〉의 몽유 구조와 작품의 내용에는 고통을 연대하는 장치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작가에 의해 작품이 집필되고 전파되는 시스템은 고통의 기억이 서사화되어 사회적 담론화를 통해 더 폭넓은 고통의 연대를 이루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강도몽유록〉에 설정된 15가지 원정들은 이러한 공적 기억의 은폐 의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 여성들의 신원과 해원을 이루는 장치로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치유와 통합서사로서 위상을 가지며, 전란 후 사회 통합에 일정 정도는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강도몽유록〉의 사회 통합 기능에 대해 설명한 것이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피해자인 여성들을 위해 사회의 치유를 통한 통합의 서사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 권력 장치가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담론을 생산했다는 본고의 논지와 다르다. 김종균, 앞의 논문, 213-214쪽.

는데, 만약 앞으로 이들과 비슷한 행위를 한 사람은 죄의식(혹은 책임감)과 수치심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³¹⁾ 죄의식은 본인 스스로에게서 발생하는 심급이고, 수치심은 타자에 의해서 비교를 통해 만들어지는 감정이다. 이 감정들은 스스로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모범적인 행위를 하게끔 강제하게 한다. 신체의 자발적 복종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 역시 권력의 영향 관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범 행위의 선양(煽揚) 작업이 17세기 예교주의(禮敎主義)가 강화되는 원인으로 작동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것이 명분론을 반영한 국가기관의 여러 수행 작업들(淸 연호 사용 거부, 북별론 제기, 萬東廟·大報壇의 건설과 祭享 등)의 시대적 맥락과 궤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³²⁾

물론 이것이 논문을 변호하는 선전적인 매체로 기능하는 것만은 변함이 없다.³³⁾ 그러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매체로 보는 것보다, 앞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시대적 맥락을 보면 17세기 병자호란 이후 동아시아 세계가 재편되면서 새로운 질서, 즉 전쟁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명분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요청되었고, 이에 왕권과 신권이 부응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들 『강도충렬록』과 〈강도몽유록〉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명분론에 부응하여 전략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에 스며들어 순절자들을 추모하는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의심 없이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복종되도록 하여, 선인과 악인을 이분법적으로 판가름하도록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체와 권력은 서로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순절이라는 이름은 각 사회의 시공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순절한 이들은 당대 맥락에서 칭송되고 그 이름이 널리 기억될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이전 시기에, 다른 공간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었다면 과연 순절한 자들로 이름이 남겨졌을 수 있었을까? 이들은 17세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순절

31) 최근 개화기에 타자인 서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가 있어 소개한다. 김미정은 타자를 대할 때 그 차이에서 어떠한 감정이 유발되는지에 대해서 조명했는데, 특히 죄의식과 수치의 부분이 본 논문의 맥락과 맞기에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타자에 대한 죄의식이 타자를 부당하게 침범한 자기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타자에 대한 수치심은 타자에 의해 경계(boundary)가 풀어헤쳐지고 가려진 것들이 드러난 자기자신에 대한 것이다. 수치의 자기관계는 타자에 대해 취약한 자기자신과의 관계일뿐더러 또한 자기자신의 전체적 이미지와의 관계이기도 하다. 죄의식의 주체가 위반되는 부분 행위에 집중한다면, 수치의 주체는 타자 앞에서 자기자신 전부를 무력하고 왜소하며, 부적절한 것으로 체험한다. 그래서 죄의식에 대한 대응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고백과 교정이라면, 수치에 대한 대응은 타자와의 관계에 적절하게 자기 모습을 바꾸거나 아니면 타자의 눈으로부터 아예 숨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여 죄의식과 수치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김미정, 『차이와 윤리: 개화기 주체성의 형성』, 소명출판, 2014, 103-104쪽.

32) 허태구는 이에 대해 “사대 관계는 부득이 청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명의리의 준수는 기준과 다른 출구를 통해 상징되고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시의 조선 사회였다.” (187쪽)라고 하여 당대 사회의 대명의리론의 중시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허태구, 앞의 논문, 187쪽, 85번 각주 참조.

33) 김일환, 앞의 논문, 2013.

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는 표창되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김정징을 악인으로 만들어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사적인, 정무적인 판단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대 맥락에서 요청되고 있던 의리, 도덕과 크게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³⁴⁾ 이와 같이 매체와 권력의 공모 관계는 당대의 맥락을 효과적으로 선전/홍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V. 나기는 말 : 현대의 매체 권력

지금까지의 논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현대의 매체와 권력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하겠다.

본 논문은 17세기 병자호란 시기 강화도에서 죽은 순절자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매체가 그들을 어떤 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죽음에 대한 묘사나 죽음을 정당화 해주는 글들, 전쟁 중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것이 당대 명분론이라는 맥락에 발맞춰 그것을 강화하고 합리화하게끔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래서 이러한 순절의 서사는 사람들의 인식을 통합하여 선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대명의로론과 같은 국가가 수행한 작업들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능들은 사람들의 신체를 자발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제 시간을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영화 〈연평해전〉은 현재 21세기의 시대 맥락에 따라 만들어진 순절에 대한 영화이다. 카메라 속에 담긴 어린 전사자들의 피와 우리 해역을 침범한 적들에 대한 분노, 그들이 죽은 후 그들을 감싼 태극기, 그리고 대별적으로 2002년 월드컵에서 환호하는 국민들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까지.³⁵⁾ 이 영화에는 17세기에 있었던 매체와 거의 비슷한 양상과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한 묘사나, 그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정당화하는 태극기, 그리고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음을 알리는 암시 등. 그 표현 방식이나 수사들은 달라졌겠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은 매우 흡사해 보인다. 이처럼 권력은 언제나 매체와 공모하여 자신의 명분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의심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끔 만든다. 가짜 뉴스, 국정역사교과서 등 이처럼 매체가 권력과 공모하면 권력의 담론과 명분을 합리화해주고, 홍보해주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만다.

34) 허태구, 「병자호란 강화도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11, 122쪽.

35)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아도 그러하다. 포스터의 윗부분에는 전쟁에서 순절한 자들을, 중간에는 태극기를, 아랫부분에는 2002년 월드컵 당시의 열기를 배치해 두었다.

현재 우리는 하나의 담론만이 우월하게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 앞에 여러 길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이야기들에 달려 있다. 하나의 담론으로 사상을 통일을 시켜 사회를 하나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담론들이 자유롭게 뿔어져 나올 수 있게 할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매체가 권력과 무조건적으로 공모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모하는 것을 경계하고 폭로하는 역할도 동시에 한다. 이것은 2017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게임 <레플리카>를 보면 알 수 있다. <레플리카>는 플레이어가 주인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독특한 게임이다. 게임에는 총 12개의 엔딩이 있고, 정부 기관의 대규모 감시 체제, 파시즘, 언론 통제와 개인 훔쳐보기 본능, 전체주의, 죄수의 딜레마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³⁶⁾ 이 게임은 우리나라의 1인 개발자 SOMI가 만든 것으로 얼마 전의 정치 상황 맥락을 토대로 권력이 개인에게 어떻게 개입하는지 잘 폭로하고 있다.

이처럼 매체와 권력의 관계는 공모하는 것도 있으며, 또한 이것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 역시 존재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매체와 권력이 공모하는 양상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 위험성과 현재의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했을 따름이다. 이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 매체는 끊임 없이 권력의 행위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병자호란 이후의 경우처럼 시대 맥락을 새롭게 바꾸지 못하고 국가기관에 복속되어 버린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과 공모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체와 권력 양자를 모두 감시해야 할 것이다.



영화 <연평해전>(2015)



게임 <레플리카>(2016)

36) 이에 대한 제작자의 키노트의 내용을 옮긴 글이 있어 소개한다.

「[BIC 2017]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꼈으면” ‘레플리카-정치적 매체로서의 게임’」, 게임어바웃, 2017.9.1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613953&memberNo=11710666>

참고문헌

1. 자료

- 김창협 編. 2013. 『강도충렬록』, 신해진·김석태 譯. 역락.
- 남효온. 『추강집』 제8권, 「六臣傳」.
- 사마천. 『史記』, 「列傳」, 〈伯夷傳〉.
- 어한명. 2012. 『강도일기』, 신해진 譯註. 역락.
- 장효현 외. 2007. 『교감본 한국한문소설2 : 몽유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한석수 譯. 2003. 『몽유소설』. 충북대학교출판부.

2. 논문

- 김미정. 2014. **차이와 윤리 : 개화기 주체성의 형성**. 소명출판.
- 김일환. 2010. “병자호란 체험의 ‘再話’ 양상과 의미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환. 2013. “숨긴 것과 드러낸 것: ‘변호’ 의 텍스트로 「강도몽유록」 다시 읽기”, **민족문화사연구**, 51.
- 김정녀. 2011. “몽유록의 공간들과 기억 : ‘역사적 공간’ 을 배경으로 선택한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
- 김정녀. 2010. “병자호란의 책임 논쟁과 기억의 서사”, **한국학연구**, 35.
- 김종균. 2016. “〈강도몽유록〉을 통한 고통의 연대와 통합서사의 사회적 담론화 모형”, **문학치료연구**, 40.
- 루이 알튀세르. 1995.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재생산에 대하여**. 동문선.
- 박양리. 2017. “병자호란 피로(披擲) 여성 트라우마의 서사적 대응과 그 의미”, **여성학연구**, 27(3).
- 백지민. 2016. “순절 담론의 서사화, 〈강도몽유록〉”, **용봉인문논총**, 49.
- 스키너, 제임스 탈리 編. 1999. **의미와 콘텍스트**, 유종선 譯. 아르케.
- 슬라보예 지젝. 1997. **당신의 징후를 즐겨라**, 주은우 譯. 한나래.
- 신성환. 2010. “死六臣 담론의 轉變과 조선후기 詩歌의 수용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서희. 2015. “『강도충렬록』에 나타난 집단적 기억과 의미”, **용봉인문논총**, 46.

- 정충권. 2007. “〈강도몽유록〉에 나타난 역사적 상처와 허상화 방식” , **한국문학논총**, 45.
- 조현설. 2009. “17세기 전기·몽유록에 나타난 타자 연대와 서로 주체성의 의미” , **국문학연구**, 19.
- 허태구. 2011. “병자호란 강화도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 **진단학보**, 113.
- 허태구. 2015. “병자호란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 **규장각**, 47.

3. 기타

- 게임어바웃, 「[BIC 2017]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꼈으면 ‘레플리카-정치적 매체로서의 게임’ 」, 네이버 포스트, 2017.09.15.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613953&memberNo=11710666>
- 최형원, 「[탐사K] 박 청와대, 영화 ‘연평해전’ 수익금 배분 개입」, KBS뉴스, 2018.10.05.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6519>

[토론문]

「병자호란 중 강화도 내 순절의 서사와 매체권력」에 대한 토론

정장순

(고려대학교 국문학 박사수료)

본 논문은 『강도충렬록』과 「강도몽유록」에서 나타난 순절에 주목하여 순절서사와 관련한 권력 담론에 대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해당 작품에 매몰되어 해석하던 기존의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현대의 현상에 대해 적용하여 해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제시한 순절서사가 현대에서도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연구자의 논의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본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각 장 서술의 비중

본 논문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서술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본고는 『강도충렬록』과 「강도몽유록」에 삽입된 다분히 정치적 서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연평해전〉이나 ‘레플리카’에 적용 시키는 부분이 다소 적어 아쉬웠습니다. 다소 외람되지만 현대의 매체에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라는 의문을 떨쳐내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본 논문은 제목에서 이미 『강도충렬록』과 「강도몽유록」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본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현대매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비중있게 다루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제시하신 순절의 서사 양상에서 ‘죽음의 묘사’는 〈연평해전〉과 같은 현

대매체로 재현된 순절 서사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전쟁에 관련되어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장면들은 대개 주인공이나 보조인물의 비장한 죽음으로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토론을 맡으며 전쟁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살펴본 결과, 선생님이 분석했던 것처럼³⁷⁾ 영상과 음악을 통해 죽음의 비극을 강조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향의 항목들과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³⁸⁾ 물론 선생님이 결론부에 〈연평해전〉과 순절서사의 연관성에 대해 소략하게 밝히셨지만, 순절서사가 현대에 어떻게 재현되었는가에 대해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연평해전〉을 통해 현대에도 이루어지는 순절서사의 정치적인 맥락을 좀 더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논문의 방향성

본 논문을 읽으며 두 번째로 든 생각은 『강도총렬록』과 「강도몽유록」 보다, ‘순절서사’의 역사성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작업이지 않을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본 논문을 읽으며 ‘순절’에 관련한 몇 가지 사건들이 떠올랐는데,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백마고지 3용사’, ‘육탄10용사’, ‘학도병’ 그리고 시기는 다르지만 ‘이승복 사건’도 연관이 되어 떠올랐습니다. 〈연평해전〉에 대해 지난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면, 위의 일화들 또한 한시기의 정치적 의도로 ‘순절한 인물’로 추앙 받았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고의 후속논문 혹은 수정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강도총렬록』과 「강도몽유록」을 통해 사대부가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했듯이 위의 ‘순절담’과 정권은 어떠한 유착관계를 가지며 어떤 이득을 얻고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재미있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토론자의 짧은 생각이지만 소위 보수 정권이라 일컫는 시대가 시작되고, 〈고지전〉, 〈포화속으로〉,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영화들이 연달아 나오는 의미 또한, 『강도총렬록』과 같은 순절서사의 맥락과 맞닿아 있어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합니다.

3. 순절서사의 효용성

이는 논문에 대한 토론보다는 토론자의 궁금증입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순절서사가 정치적

37)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할수록 읽는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죽음을 의로운 행위로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당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들을 추모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인 글쓰기이다.”

38) 내부의 적 생성, 행위의 정당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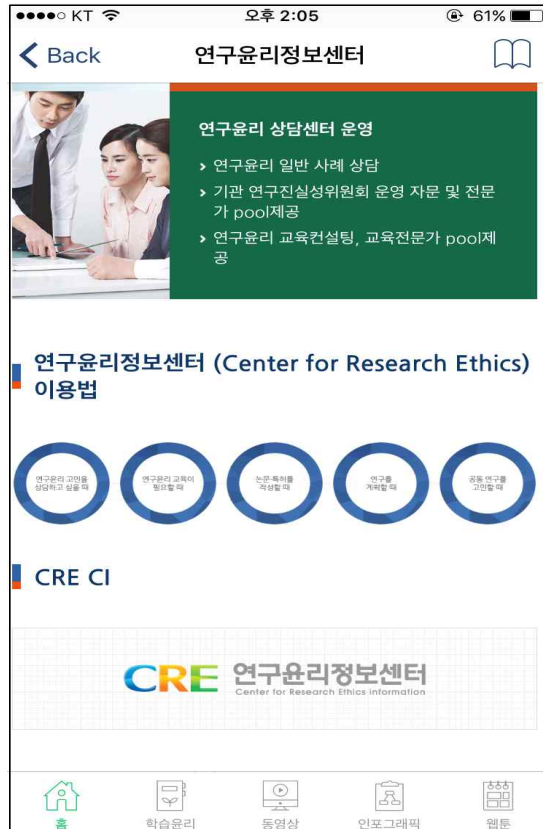
목적으로 이루어져있다면, 순절서사에 저항하는 여론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순절 서사를 아무리 완벽하게 창출해낸다 하더라도 대중이 그 의도대로 움직였을까하는 생각 또한 듭니다. 혹시 순절서사에 대항하는 여론이나 혹은 반응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부 워크숍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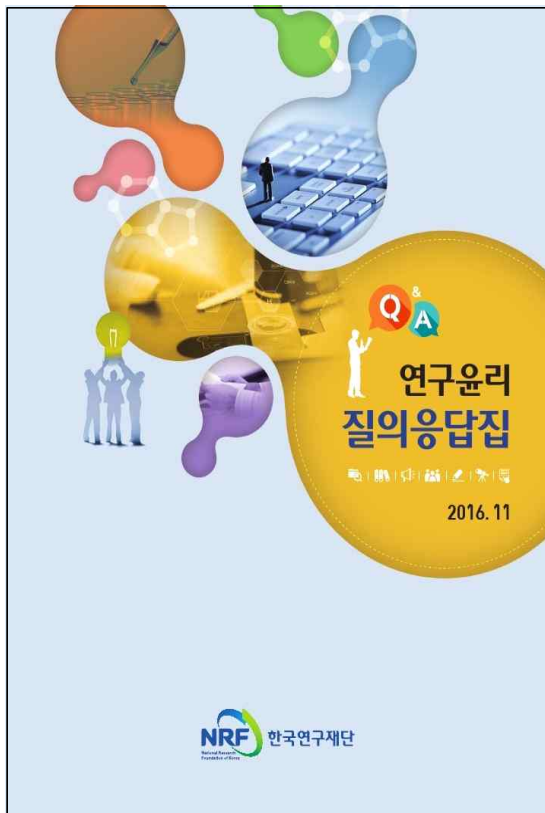
한국융합인문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2018.10.27)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한국융합인문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2018.10.27)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1)



CONTENTS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1
 연구설계

-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 작성 가능할까? 2
- 2 연구대상자를 복원 혹은 녹화하는 연구에서 사전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가? 3
- 3 공동연구에서의 연구 설계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

CHAPTER 2
 연구수행

- 4 자신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의 연구데이터 수집 시 유의 사항은? 5
- 5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7
- 6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8
-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9
- 8 동료의 연구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행위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가? 10
-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11
- 10 동료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위로 실험결과를 만들고 그래프로 작성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3
- 11 민간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책임자의 자녀가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14
- 12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에서 사급 게시 이전 성과를 포함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가? 15
- 13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원이 수행한 인건비를 지도교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16
- 14 지도교수의 요구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날려주고, 다른 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인가? 17

- i -

한국융합인문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2018.10.27)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2)

CHAPTER 3

연구발표

-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36
-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38
-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39
- 33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위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안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41
-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적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42
-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43
- 36 A와 B가 연구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가 연구에서 A가 연구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위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가 연구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44
- 3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립대학과 의대학이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편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45
-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가? 46
-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방향을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되는가? 48
- 40 A 기간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B 기간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9
- 41 연구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 50
-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51
-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에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52
-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 졸업 이후에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54

- iii -

CHAPTER 4

저자표시

-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58
- 46 포스트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59
-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 전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자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60
- 48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61
-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제출과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작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62
- 50 학술대회에서 포스트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63
- 51 선행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64
-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작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65
-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66
-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없이 저자를 변경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68
-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70
-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72
-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74
- 58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75
-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77

- iv -

한국융합인문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2018.10.27)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3)

CHAPTER 5
중복게재

- 60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80
- 61 승진된 학위논문용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 81
-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된 연구 내용을 장구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되는가? — 82
-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84
- 64 연구보고서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재출판 할 수 있는가? — 86
-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87
- 66 연구용역 결과 논문집이 발간된 상황에서,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논문으로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89
- 67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의 실험데이터를 출처표기 없이 활용하면서 해외 저널에 후속 논문을 출판한 경우 중복게재인가? — 90
-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 표절인가? — 91
- 69 유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각각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묶어 저서로 출판할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차용 문제에 소지가 있는가? — 92
- 70 사회과학연구에서 동일한 연구현상을 수집한 후, 한국과 미국 데이터로 결과를 분리하여 각각 한국과 미국에 출판할 경우 자기표절에 포함되는가? — 94
- 71 A와 B라는 실험데이터로 각각 논문을 출판한 후, A와 B의 연계성을 주제로 하는 신구 논문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95
- 72 대학원생이 참여한 연구용역과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인용을 빠뜨렸다면, 연구부정행위인가? — 96
- 73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97
- 74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출판한 논문을 몇 년 후 해외 학술지에 이중게재하였다. 해당 연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98
- 75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 99

- v -

CHAPTER 6
연구부정행위 검증

- 98 논문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 124
- 99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부정행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125
- 9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가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예비조사위원회 명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가? — 128
- 96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 129
- 98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 위원회로부터 출처 및 인턴십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출처에 반드시 응답 의무가 있는가? — 130
- 100 지도교수의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 131
- 101 대학 연구교원 채용 지원자의 논문에서 제기된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 133
- 102 학술지에서 논문을 검증하여 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였다. 소속 기관은 학회의 검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할 수 있는가? — 134
- 1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료가 남아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135
- 104 모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던 중에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술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136
- 105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검증은 어떤 후,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37
- 106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을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 138
- 107 논문을 철회하면 연구윤리 검증 대상이 되는가? — 140
- 108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141
- 109 외부기관에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의뢰하려고 할 때, 그 대상과 절차는 무엇인가? — 143
- 110 타 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검증 주체는 어디인가? — 144
- 111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발탁이 의무사항인가? — 145
- 112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46

- vii -

한국융합인문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2018.10.27)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안내 및 자료 배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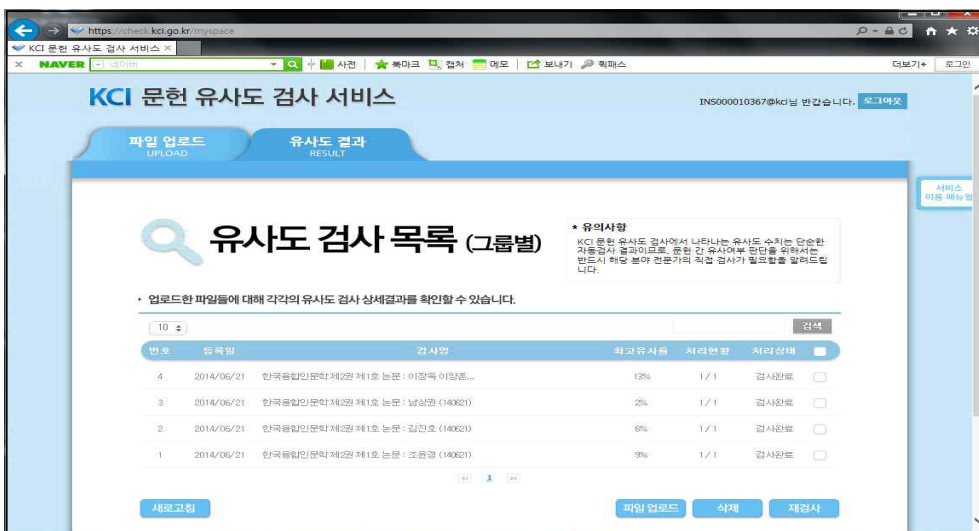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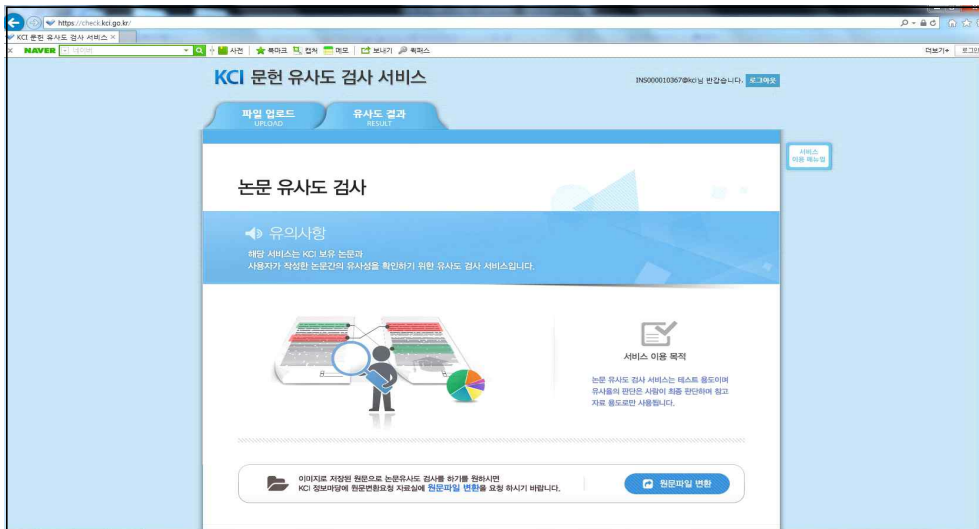
IRB

122	사회적 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불사 및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162
124	심리학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연구 설계 및 사전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는가?	164
125	자신의 이해유예를 분석하는 자기 실험의 경우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65
126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IRB 심의가 필요한가?	167
127	IRB 심의면제 대상 연구에는 무엇이 있는가?	168
128	대학 병원의 전임의가 일반인 대상 연구 시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0
129	석사 학위논문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1
130	임상연구 논문에서 공동 저자로 등록되려면, IRB 신청서에도 공동 연구자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가?	172
131	IRB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 논문에 대해 해외 저널에서 IRB 심의서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73
132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174
133	IRB 승인을 받지 않고 실험한 실험을 사용할 수 있는가?	176
134	자신의 고리극을 수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능한가?	177
135	신뢰기사나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를 할 때에도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178
136	IRB 승인된 연구계획서와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179
137	추가적인 IRB 승인없이 기 승인된 IRB를 이용하여 논문을 추가로 출판할 때 연구윤리의 위반이 되는가?	180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81

- ix -

한국융합인문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2018.10.27)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1)



한국융합인문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2018.10.27)
 융합의 시대에 다시 읽는 고전문학과 근대문학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2)

